

# ‘투표 없이 당선’ 역대 최다...유권자 선택 축소 우려

### 광주 서·남구 기초단체장 2명...광역의원 43% 달해 기초의원 44명도...4년 전 지방선거 대비 17명 늘어 대부분 민주당 소속...유세·벽보 중단 ‘깜깜이 선거’

6·3 지방선거 광주·전남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에 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독주 체제와 유권자 선택권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

명 등 모두 80명이 경쟁 후보 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정치 지형 속에 야권이나 무소속 후보 출마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수 선거구에서 투표 자체가 사라졌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가 6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7명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다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현직인 민주당 김이강 후보, 남구청장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병내 후보가 각각 단독 등록했다.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70개 선거구 가운데 34곳에서 단독 후보만 등록해 전체 지역구 의원 정수 79명 중 43%가량이 투표 없이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단독 입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는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 24명 가운데 5명(20.8%)이 무투표 당선 대상이 됐다. 동구 2곳, 서구 1곳, 남구 2곳, 광산구 4곳 등에서 민주당 후보만 등

록했다.

전남은 상황이 더 두드러졌다.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 5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명(52.7%)이 경쟁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목포 1·3·4, 여수 2·5·6, 순천 2·5·6·8, 나주 1·2, 광양 1·4, 담양 1, 장성 2, 구례, 고흥 1·2, 보성 1, 화순 1·2, 완도 1, 해남 2, 영암 1·2, 무안 1·2, 신안 1 선거구 등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 이 많아졌다.

광주에서는 각각 3명을 선출하는 북구 다선선거구와 광산구 라선선거구에 후보 3명씩만 등록해 모두 당선이 확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 가, 여수 가, 고흥 가, 완도 나, 신안 라선선거구 등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고흥군의회는 전체 4개 선거구 중 2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됐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역시 광주 동구와 전남 구례·화순·강진·영암·무안·함평 등에서 단독 등록 사례가 이어졌다.

정당별로는 무투표 당선자 80명 가운데 7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다른 정당 후보로는 진보당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가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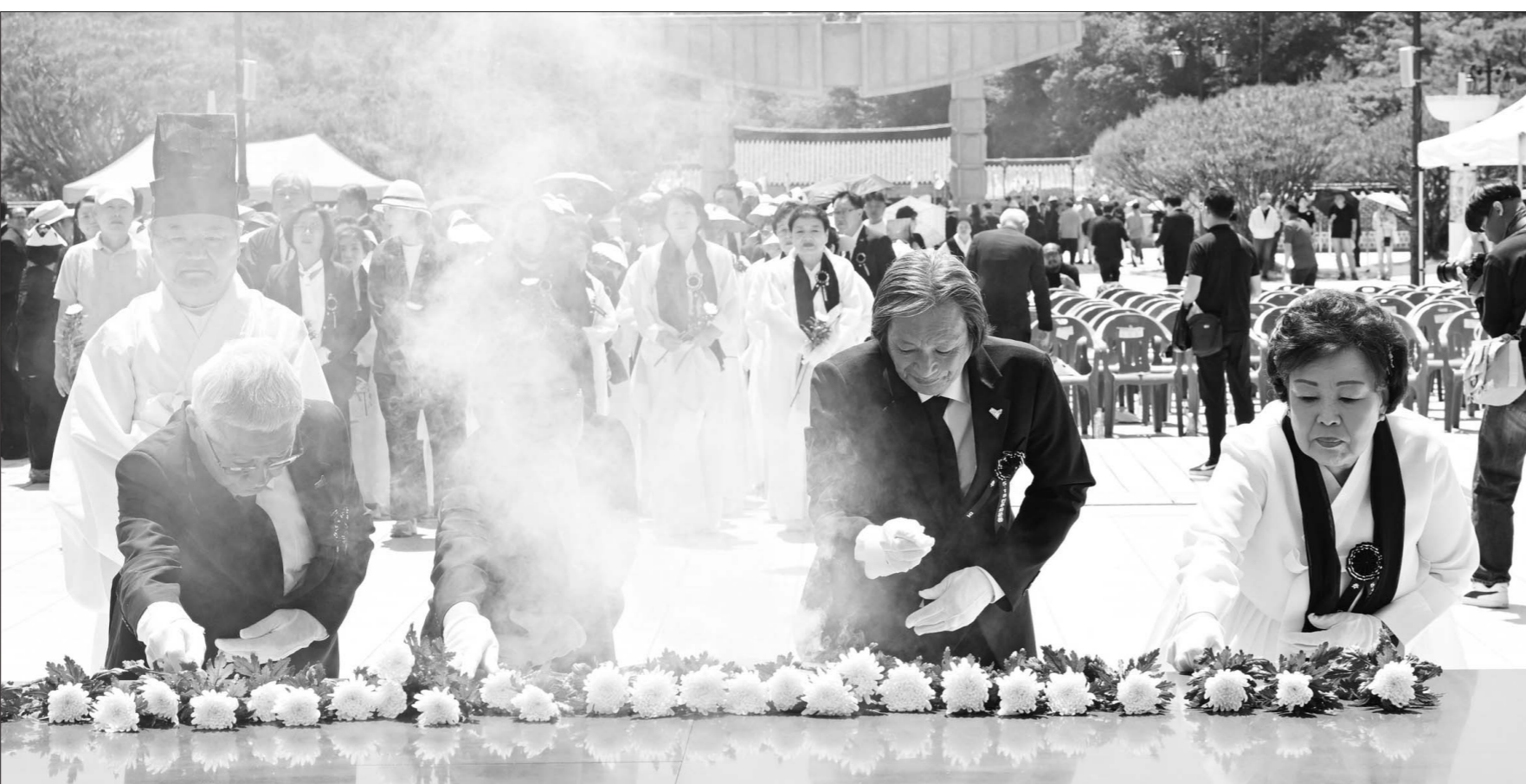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 입후보자

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세차 운영과 거리 유세, 현수막·벽보 게시, 공개 연설, 전화·온라인 홍보 등 일반적인 선거운동이 모두 제한된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 출립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를 통해 정책과 인물을 비교·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무경쟁 선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현화하는 유가족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현화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 대통령,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 내일 경북 안동서... “민생분야 실질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9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19~20일 1박 2일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소인수·확대 정당회담과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공식 일정은 물론 별도의 친교 일정도 함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복지부 1차관 현수엽·관세청장 이종욱

### 차관급 인사...임명 1년 안된 채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부 차관급 정부직 공직자에 대해 전격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정책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수석은 현 신임 차관에 대해 “인구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라며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청장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며 “우



현수엽 이종욱

리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통관행위를 차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세관청장 자리에도 문성오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1면 ‘6·3지방선거’서 계속

교육감 후보를 제외한 정당별 등록 후보는 민주당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소속 144명, 조국혁신당 84명, 진보당 6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2명, 기본소득당 7명, 개혁신당 2명, 자유와혁신 1명 순이었다.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광주·전남에서는 8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후보와 남구청장 김병내 후보 등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이 경쟁 후보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무투표 당선자 80명 가운데 79명은 민주당 소속이며, 다른 정당 후보로는 진보당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가 유일했다.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는 226명으로 28.9%를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73명 중 여성은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신수정 후보와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정연지 후보 등 2명이다.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6.7세였고, 45세 이하 청년 후보는 85명으로 10.9%였다. 최고령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신안군 제2선거구 무소속 최신우 후보로 79세, 최연소 후보는 광주 광산구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임인수 후보와 순천시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이재현 후보로 각각 27세다.

재산 신고액 평균은 8억3036만1000원, 중위 재산은 4억9934만5000원이었다. 최고 재산 신고자는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희수 후보로 261억1523만6000원을 신고했다.

## 전남·광주, G20 유치전 돌입... “준비된 개최지” 승부수

### 민주·인권·에너지·K-컬처 결합한 전남광주형 비전 제시

### 여수엑스포·옛 전남도청 연계 분산형 국제행사 모델 추진

전남도와 광주시가 2028 G20 정상회의 공동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1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기본구상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전남·광주 공동 유치 전략과 실행 방향, 주요 거점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관련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인 탁현민 티클모아 대표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단순한 유치 의사 표명을 넘어 실제 개최 역량과 국제행사 운영 능력을 갖춘 ‘준비된 개최지’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

췌었다. 용역 결과에서는 전남·광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당시 적용된 주요 평가 기준인 유치 당위성, 지역 강점,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지역 발전 기여도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성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이 핵심 강점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남도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K-컬처 경쟁력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등 글로벌 의제를 논의할 최적의 개최지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행사 운영 방식으로는 전남·광주의 주

요 거점을 연결하는 ‘분산·연대형 국제행사 모델’이 제안됐다.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를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등 지역 상징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국제회의와 문화행사를 분산 개최하고, 이를 통해 광주·전남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 정상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행사운영 경험도 경쟁력으로 꼽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23순천만 국제제원박람회 성공 개최 경험,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국제회의 운영 노하우 등이 전남·광주의 대형 국제행사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전남도는 G20 정상회의 유치가 성사될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가능성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까지 개최도 시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적으로는 관광과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향후 통합특례시 출범과 연계해 각계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G20 유치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범특별 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 공모 대응과 함께 국내외 홍보 활동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G20 유치는 광주·전남 시도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며 “광주와 함께 가능한 한 빠르게 홍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정상들이 머무를 수 있는 한옥 리조트를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4월 ‘2028 G20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까지 개최도 시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민주의 밤’ 전야 행사, 오늘의 사회문제 공유

▶1면에서 이어지는 특별공연에서는 광주 시립발레단과 대규모 무용단이 참여해 ‘K-민주주의 계승’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대형 태극기 연출이 어우러져, 1980년 광주의 정신이 현재를 넘어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단지 과거를 추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세계 시민사

회와 미래 세대의 가치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도.

올해 기념식은 시민 참여 확대에도 방점이 찍혔다. 국가보훈부는 금남로 방면에 대형 LED 화면을 설치해 초정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도 현장에서 함께 기념식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간인 ‘광장’을 시민 모두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의미를 담은 ‘열린 기념식’이다.

기념식 전후로 이어진 시민 참여 행사

도 세대 간 공감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시민난장과 ‘오월 민주버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구형 버스를 당시 시내버스 형태로 재현해 시민들과 함께 5·18 사적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세대가 오월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야제 성격의 ‘민주의 밤’ 행사 역시 기존 추모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됐다. 마당극과 노래 공연, 시민 발언이 이어졌고, 인권과 기후, 반전·평화 등 오늘의 사회 문제를 함께 이

어나며 오월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공유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5·18이 특정 지역의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 위에 서 있다”며 “이번 기념식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다시 기억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